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왜 여전히 미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나
- WSJ: 인플레 둔화 불구 미소비자들 인플레에 민감한 이유
- WSJ: 미국인들 내일이 없는 것 처럼 소비한다
- PRNewswire: 미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49%로 소폭 상승… 여전히 위축
- WSJ: 의회 셧다운 일시 피해…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이슈 이견 커

[미국 금융]
- Bloomberg: 골드만삭스, “금리상승으로 기업들 수익 타격” 경고
- WSJ: 달러 강세는 글로벌 두통 거리

[부동산]
- Bloomberg: 투자자들, 미 오피스 시장 심각한 침체 경고

[자동차 파업]
- WSJ: UAW 파업, 철강 수요에 타격

[학비 대출금]
- WSJ: 학자금 대출 상황에 준비 방안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팬데믹 동안 기업들이 얻은 이익, 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
- Bloomberg: 내년부터 월급 인상률 줄어든다
- WSJ: 중소기업 파산, 팬데믹 이후 가파르게 증가
- CNBC: 아마존 고객들, 지난 주말 대량으로 기프트카드 사기성 이메일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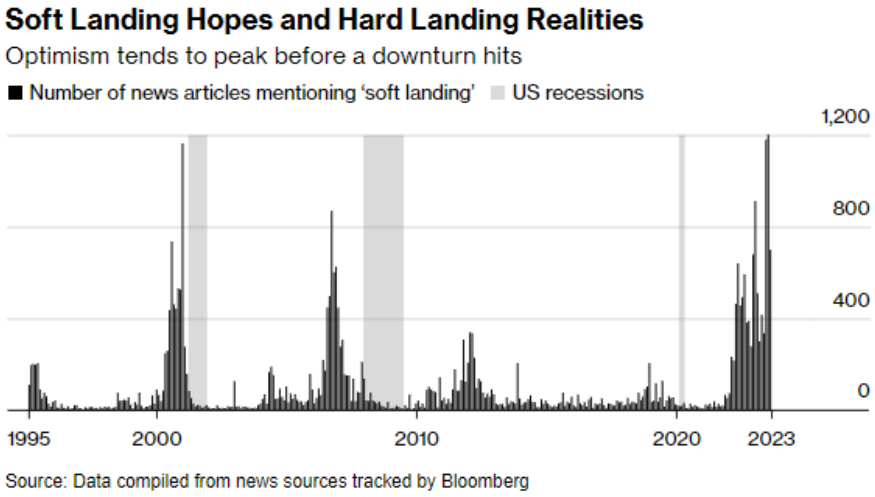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Why a US Recession Is Still Likely — and Coming Soon
왜 여전히 미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나

-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연방 정부 셧다운이 잠시 미루어졌을 뿐이며 대규모 자동차 파업, 학자금 대출 상황 재개, 임시 지출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셧다운 가능성 등으로 4분기 GDP가 손쉽게 1 포인트 퍼센트 하락할 수 있다.

- 이러한 충격에다 팬데믹 때의 저축 감소, 유가 상승 등의 요인까지 합칠 경우 빠르면 올해안에 미국 경기가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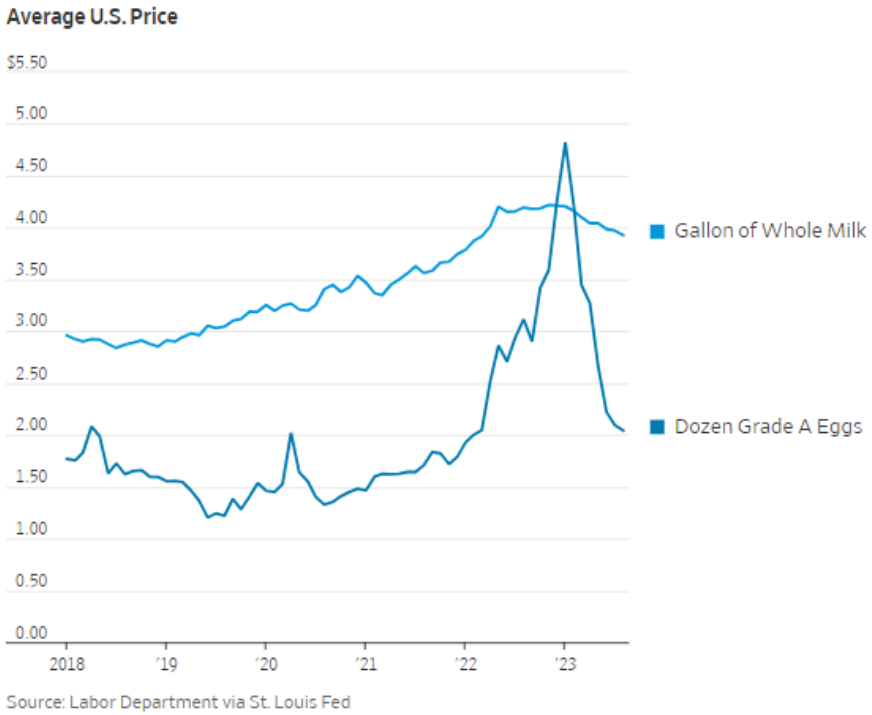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Why Consumers Are Mad About Inflation Even Though It Has Fallen
인플레 둔화 불구 미소비자들 인플레에 민감한 이유

- 올해 많은 품목들의 가격이 작년보다 더디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 가격들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이나 그 시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때로 물가가 되돌아 가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연준은 물가 변동률인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품목의 '절대' 가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는 낮은 상황이다. 9월 미 시간대 현재 경제 여건에 대한 미국인 평가과 관련해 이들의 소비자 심리는 8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 소비자가 볼때 식료품, 주유소, 자동차 가격이 눈에 띄게 높았고 갤런당 우유도 3달러 93센트로 올해 초보다 낮아졌지만 2019년 8월보다 29%정도, 즉 여전히 1달러가 높은 상황이다.



WSJ 기사

WSJ: Americans Are Still Spending Like There's No Tomorrow
미국인들 내일이 없는 것 처럼 소비한다

- 요지: 미국인들은 집을 구입한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보다는 컨서트, 여행, 디자이너 핸드백 지출에 우선 순위를 둔다.
- 미국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인 가계 지출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미국인들은 8월의 소비가 전년 동월에 비해 5.8% 늘었다.
- 예를 들면 델타 항공은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보였고, 티켓 마스터는 올해 상반기 6개월동안 2억9천5백만장의 이벤트 티켓을 판해해 전년 대비 약 18%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 물론 많은 상품 가격이 수년전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인플레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WSJ 기사

PRNewswire: September 2023 Manufacturing ISM at 49%
미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49%로 소폭 상승... 여전히 위축

- 미 9월 제조업 PMI는 49%를 기록해 8월의 47.6% 보다 1.4% 포인트 상승했다.
- 미 전체 경기는 30개월 동안 확장한 후에는 9개월간 축소되다가 이번에 약하게 확장된 것이다.

- 신규 주문지수는 49.2%로 8월의 46.8%도다 2.4% 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위축 영역에 머물러 있다. 생산 지수는 52.5%로 8월의 50%에 비해 2.5% 포인트 늘었다.

PRNewswire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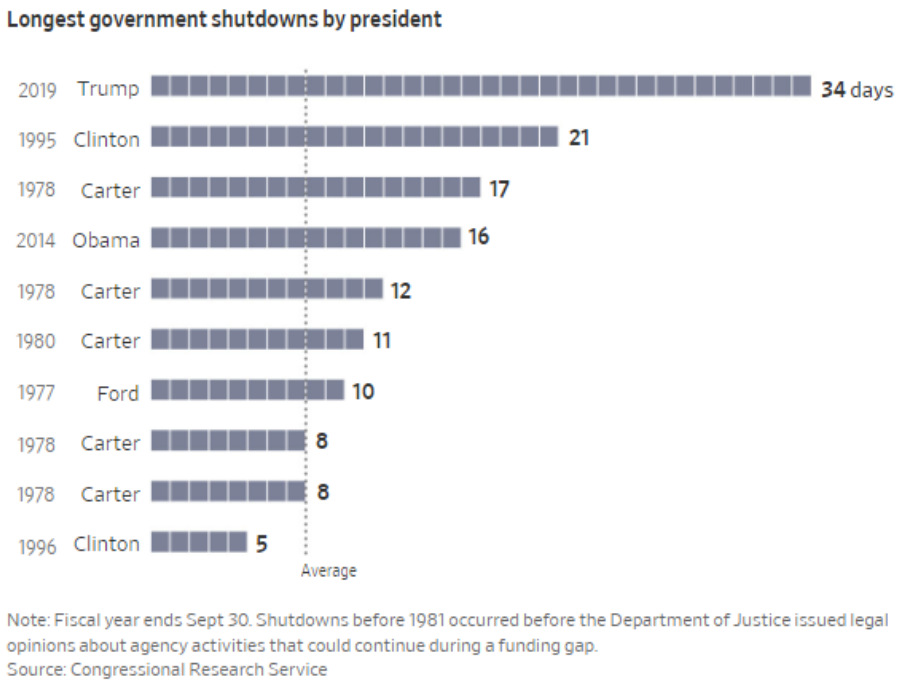
WSJ: Congress Stopped a Shutdown, but Fights on Ukraine, Border Intensify
의회 셧다운 일시 피해… 우크라이나 지원, 국경 이슈 이견 커

-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첨예한 이견차를 보이는 이슈들은 일단 제쳐 두었다. 이제 몇주일 남겨 놓고 우크라이나 원조를 둘러싼 갈등해소, 국경 통과자 급증 해소와 연방 정부의 전체 규모를 줄이는데 노력해야하는 상황이다.

- 의회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주말 투표를 통해 일시 셧다운을 중단시켰다.

- 그러나 의회의 지출 수준, 키에프에 대한 지원이나 이민 정책에 대한 갈등은 단지 연기한 상태다.

- 더욱이 공화당의 하원의장인Kevin McCarthy는 같은 공화당Matt Gaetz 의원이 “하원 의장을 축출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자신에 대한 축출 움직임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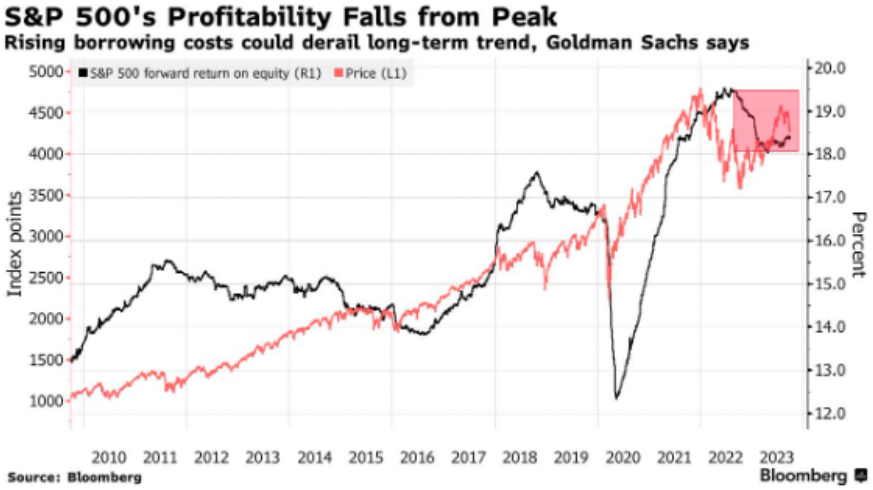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Higher Rates Starting to Hit US Profits, Goldman Strategists Warn

골드만삭스, “금리상승으로 기업들 수익 타격”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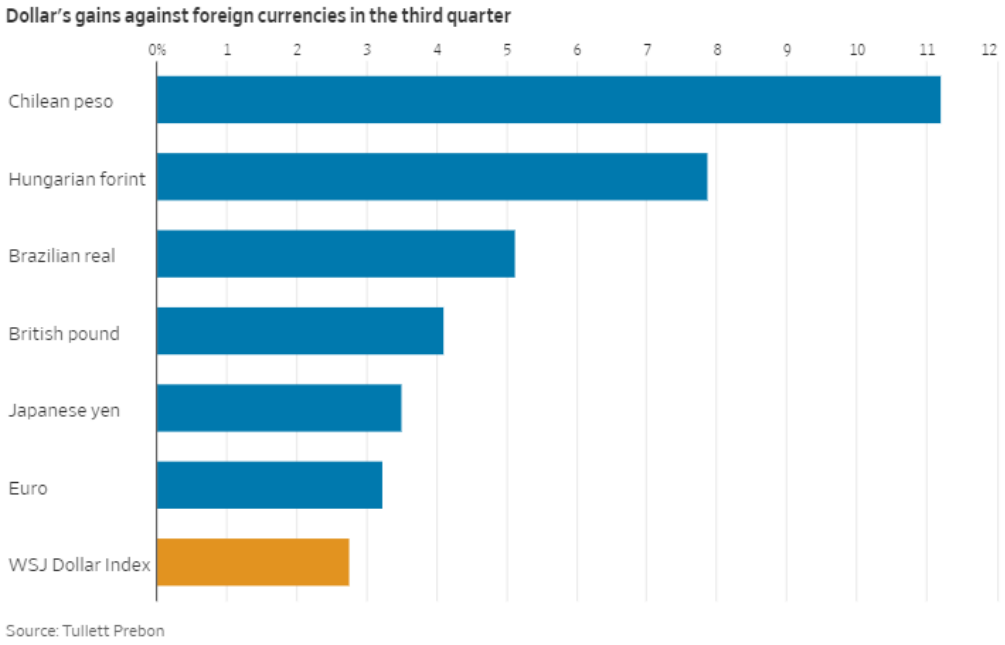
- 골든만삭스의 전략가들에 따르면 금리 상승이 미국 기업들의 수익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고 있으며, 고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경우 역사적 추세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 S&P 500 기업의 차입 비용이 전년 대비 거의 2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골드만삭스는 밝혔다. 8월초 부터 미국 증시는 채권 금리 상승과 경제 성장율 둔화로 S&P 500지수가 약 6.5%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The Strong Dollar Is the World's Headache
달러 강세는 글로벌 두통 거리

- 지난주에 1년만에 가장 강세를 보인 분기를 끝낸 후에 달러는 둔화될 신호를 보이지 았고 있다. 월요일 WSJ 달러지수는 0.3% 상승했다.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약 6%가 상승했다.
- 달러화 상승은 미국 이외에 나미지 국가들에 부담을 준다. 이머징 마켓 통화는 달러 강세 때문에 특히 타격을 받았는데 올해 3분기에 달러는 칠레 페소 대비 11%, 헝가리 포린트 대비 8%가까이 상승했다.
- 아래는 국가들 화폐와 달러 비교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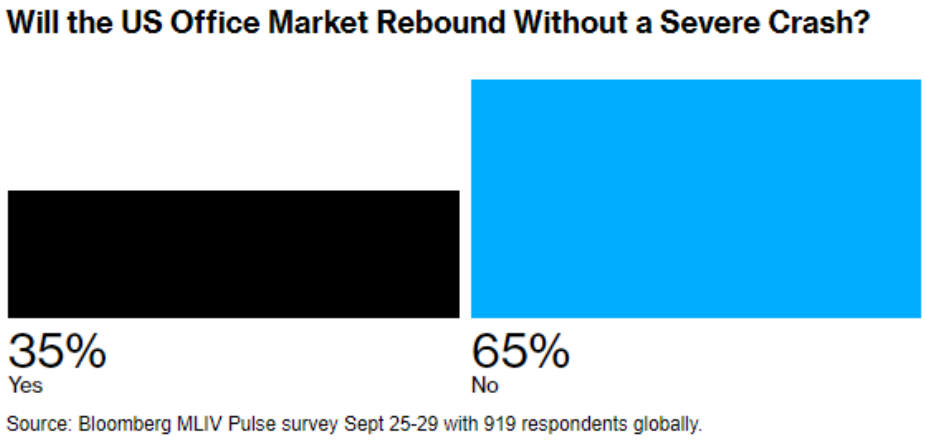


WSJ 기사

[부동산]

Bloomberg: Severe Crash Is Coming for US Office Properties, Investors Say
투자자들, 미 오피스 시장에 심각한 침체 경고

- 블룸버그의 최신 Markets Live Pulse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오피스 가격이 폭락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9개월 동안 하락할 예정이다.
- 블룸버그 조사에 응한 919명의 응답자 중 대략 3분의 2가 미국 오피스 시장이 심각한 침체 이후에야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024년 하반기나 그 이후에 가지나서야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이라고 말한다.
-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이런 결과는 2025년 말전에 에 상환 날짜가 도달하는 1조 5천억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에 악재로 보인다.
- 재융자는 쉽지 않을 것이며, 전체 상업용 부동산의 25%가 오피스로 추정된다.
- 상업용 부지 가격에 관한 Green Street 수치는 2022년 3월에 정점을 찍고선 현재 16% 감소했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파업]

WSJ: UAW Strike Hits Demand for Steel
UAW 파업, 철강 수요에 타격

- 디트로이트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파업이 지난 몇 달간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미국 철강 시장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 기준점이 되는 코일형 강판(colied sheet steel)의 현물시장 가격이 4월 이래로 40%가량 감소했다. 철강 구매자들은 구매량을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 건설 그리고 최근 자동차 분야 같은 주요 철강 소비 산업 부문의 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자동차 산업의 철강 수요는 지난 다년간 철강 산업의 호재였다. 철강생산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그리고 전기차 생산 속에 철강 수요 증가를 예상했으며 기업들은 생산설비에 투자해 왔다.
- 그러나,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에 의해 파업이 시작된 여름 동안,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철강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철강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학자금 대출]

Bloomberg: Your Student Loan Repayments Are Due Again. Here's How to Prepare.
학자금 대출 상황에 준비 방안은

- 우선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파악하라.
- Studentaid.gov를 방문해 서비지 제공 업체를 파악하라
- 그리고 납부 기한을 파악하고 납부해야할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 새로운 상환 옵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기존의 지불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이 자신의 예산과 잘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라.
- 대출자의 매월 지불액을 낮출 수 있는 이른바The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SAVE) 플랜 활용을 검토하라.
- 궁금한 점이 있으며 대출 서비스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라.
- 만약 재정적으로 어렵고, 예산에 맞게 어떻게 상환을 맞출지 모를 경우 12개월간의 유예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Will Companies Keep Their Pandemic-Era Gains? It Depends
팬데믹 동안 기업들이 얻은 이익, 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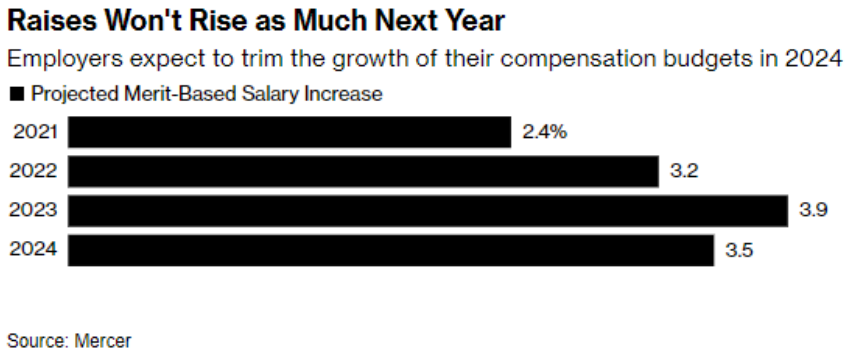
- 펜데믹 기간 동안 눈에 띈 특정 소비 패턴이 팬데믹 이후로 정상화됨에 따라 약화하였다. 반면, 지난 몇 년 동안의 다른 쇼핑 패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ING의 수석 국제 경제학자 James Knightley에 따르면, 사람들이 3년 내로 소비하게 되는 음식, 음료, 의류, 신발 그리고 휘발유 같은 비내구재의 경우, 대다수 소비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 차량, 보석, 가구 그리고 가정용 제품 같은 내구재 소비는 팬데믹 수준보다 더 높게 유지됐다. 이는 8월 기준 미국 소비자 지출의 11.7%를 차지했다.
- 그러나, Knightley는 저축이 감소했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으며, 대학생 대출 상환이 이번 달에 끝나고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압력들은 지난 몇 년간 발전해 온 소비 행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팬데믹 기간동안 기업들이 얻은 일부 수익을 조금씩 줄일 것이라고 말한다.
-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고객들이 사재기하고,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혜택을 본 코스트코의 경우, 9월 3일에 끝난 분기 동안 고객들의 쇼핑 빈도는 대략 5% 상승했지만, 구매량은 4.5% 감소했다.

WSJ 기사

Bloomberg: Don’t Expect the Same Raise You Got Last Year
내년부터 월급 인상률 줄어든다

- Aon Plc의 조사에 응답한 미국 고용주들은 내년 산업 전반에 걸쳐 평균 3.7%의 성과급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3.9% 인상분보다 감소한 수치인데,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고, 작년보다 완화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또한, 직장 컨설턴트 기업인 Mercer의 조사에 의하면, 성과에 기반한 내년 월급 인상이 3.5%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3.9%에서 감소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Small Business Bankruptcies Rising at Worst Pace Since Pandemic
중소기업 파산, 팬데믹 이후 가파르게 증가

- 올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금리 인상, 엄격한 대출 기준, 높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 기업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 동안 기업들을 돕던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끝난다.
-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노력은 대기업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현금 보유량이 적은 소규모 기업에 특히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 American Bankruptcy Institute(ABI)에 따르면, 올해 9월 28일까지 거의 1천 500여개의 중소기업이 파산신청을 했으며, 이는 2022년 전체 파산 신청건수 만큼 많은 수치이다

WSJ 기사

Amazon customers report false email confirmations for gift cards they did not buy
아마존 고객들, 지난 주말 대량으로 기프트카드 사기성 이메일 받다

- 아마존 고객들이 주말 동안에 아마존으로부터 자신이 구매하지도 않은 기프트 카드를 받았다는 거짓 확인 메일을 신고했다.
- 아마존 고객 서비스 센터에는 자신들의 계정이 해킹당한 것 아니냐는 고객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한 담당자는 이메일 오류의 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며, 고객들은 안전하며 메시지를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상상 못했던 고금리 '뉴노멀' 되나…신흥국 증시 부진

블랙록 회장 "10년물 미 국채 금리 5% 이상으로 오를 것"
WSJ "새 금리 체제로 인해 시장 희비 엇갈려"

미국 등의 국채 금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극심한 채권 매도세 속에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연초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수준에 근접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장중 2.9785%를 찍으며 2011년 이후 닿은 적 없는 3%에 근접했고, 6월 말 3.818%였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인 4.6%로 올라간 상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